# 북스

Books

# ‘어린 왕자’ 뒤에 열정적 사랑 있었네

## 생텍쥐페리의 전설적인 사랑

### 알랭 비르콩들레 지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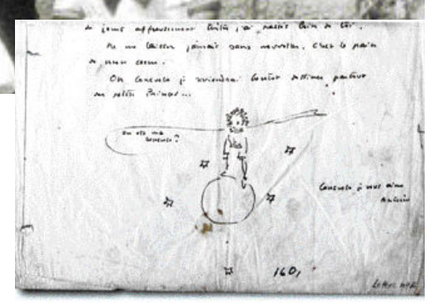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글귀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밝혀준 ‘등불’과 같다. 어린왕자와 여우, 장미, 그리고 불시착한 조종사가 나누는 대화 속에는 사람과의 관계, 사랑, 우정 등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올해는 ‘어린왕자’가 탄생한 지 꼭 60년이 되는 해다. 1946년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출간된 ‘어린왕자’는 지금까지 160여개 언어로 번역돼 모두 8천만부가 팔렸다. 60주년을 맞아 ‘어린왕자’를 탄생시킨 생텍쥐페리(1900~1944)를 재조명하는 작업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11개국에서 동시 출간된 ‘생텍쥐페리의 전설적인 사랑’은 생텍쥐페리와 아내 콘수엘로가 주고 받은 편지를 모티프 삼아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의 ‘사랑’과 ‘삶’을 보여주는 독특한 전기다.

최근까지도 생텍쥐페리는 유럽에서 ‘독신’으로 포장돼 왔다. 그들의 사랑이 잊혀졌던 건 지방 귀족출신인 생텍쥐페리의 가족들이 남미 출신으로 두번의 사별을 한 콘수엘로의 존재를 감췄기 때문. 생텍쥐페리와 관련된 책을 여러권 집필한 저자 알랭 비르콩들레는 콘수엘로 비서가 제공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았다.

1944년 2차 대전 중 정찰 비행을 나갔다 홀연히 사라져 버린 그가 평생 동안 열정을 다해 사랑했던 것은 세 가지였다. 비행, 여자, 그리고 문학. 책에서는 그의 삶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세가지에 대한 세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생텍쥐페리와 콘수엘로의 결혼식 장면과 생텍쥐페리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아래〉.

## 아내 콘수엘로와 주고 받은 육필 편지·사진 통해 본 생텍쥐페리의 비행·여자·문학

특히 아내 콘수엘로와의 사랑 이야기는 ‘나는 사랑을 벗어나서 사는 법은 모른다. 나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글을 써왔다’고 고백해온 생텍쥐베리가 ‘어린왕자’를 쓸 수 있었던 바탕이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다. 생텍쥐페리는 아내에게 사랑을 퍼붓고 집착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갈망했고 비행 등을 이유로 그녀의 곁을 자주 비웠다. 남편은 끊임없이 떠났다 되돌아오고 아내는 괴로워하면서도 남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은 평생 동안 계속됐다.

하지만 1944년 ‘비행사 사망. 비행기 기체는 손상 없음. STOP’이라는 짤막한 전보를 받아든 콘수엘로는 ‘나는 남편의 심장에서 살고 싶었다. 그이는 나의 별이었고, 내 운명, 내 신앙, 내 마지막이었다’는 말로 무한한 애정을 표현했다.

이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건 바로 풍부한 사진과 육필 원고, 그림들이다. 생텍쥐페리의 작은 박물관에라도 방문한듯, 두 사람의 육필 편지는 물론이고 유명한 ‘야간비행’을 쓰던 중 그린 그림, ‘어린왕자’와 ‘여우’ 그림 초안, ‘야간 비행’의 출간을 기념해 1933년 겔랑이 만든 향수병 등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이미지 박스·1만1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욕망을 욕망으로 인정 못하는 현대인의 비극

## 이승우씨 중편소설 ‘욕조가 놓인 방’

장흥 출신 소설가 이승우(47·조선대 교수·사진)씨가 현대를 살아가는 30대 남성의 사랑을 그린 중편 연애소설 ‘욕조가 놓인 방’을 내놓았다. 저자는 ‘우리 문학에서는 보기 드물게 형이상학적 탐구를 멈추지 않는 작가’라는 평에 걸맞게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내다본다.

100페이지 분량의 길지 않은 소설이지만 첫 장부터 어쩐지 낯설다. 대개의 사람들이 ‘사랑은 …이다’식의 정의를 쏟아내지만 저자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사랑이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곳이 애매모호한 것 처럼. 소설을 관통하는 2인칭 시점이 생소한 것과 소설의 구조가 시간의 흐름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간다는 것도 저자의 의도를 돕는다.

37세를 앞둔 주인공 ‘당신’은 회사 일로 멕시코 출장을 떠나 마지막 날 관광을 위해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지인 욱스말에 도착한다. 그 곳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주인공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들의 첫 키스는 마야의 신화가 살아 숨쉬는 피라미드 언덕에서 이뤄진다.

16개월 후 주인공은 지방 도시로 구조조정과 동격인 발령 근무를 가야할 처지에 놓인다. 아내는 “나는 안 가요”라고 잘라 말하지만 주인공 역시 굳이 같이 가자고 할 마음이 없다. 주인공은 새 발령지에서 다시 만난 그녀와 ‘욕조가 거실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녀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한다. 한달여 동거를 하지만 주인공은 매일 밤 욕조에 들어가 수장(水葬)을 꿈꾸는 그녀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고 ‘면도기와 액자’를 남겨둔 채 그 집을 떠난다.

삶 자체가 연기(演技)인 주인공은 언제나 욕망을 스스로 검열하고, 욕망에 솔직하지 못하다. 그런 주인공도 사랑에 빠지지만 ‘늘 그렇듯’ 어느 순간 어색함을 느끼고 거기서 빠져나오려 한다. 이같은 주인공의 모습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혼자 있을 때조차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 어려운-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작가정신·7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생활속서 가르치는 우리아이 통합논술

### ‘아빠가 들려주는 교양’

2008년부터 선보이게 될 통합논술의 핵심은 ‘영역을 가로지르는 사고’다. 이건 또 어떻게 가르쳐줘야 하는걸까. 부모들의 걱정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아빠가 들려주는 교양’(전 4권) 시리즈는 생활 속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통합논술에 유리한 ‘전이적 사고 방식’을 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리즈는 논술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18개의 주제를 인간·관계·감정·세상 등 4개의 범주로 나눈 것이다.

논술 전문가인 공동 저자 신진상·최양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TV드라마나 야구 중계, 만화영화를 본 뒤에도 얼마든지 철학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지북·각 권 9천700원〉

## +i

▲비즈니스 런치=술자리로 이어지기 쉬운 저녁 약속은 부담이 가기 마련이다. 가정이 있거나 술이 약한 사람은 ‘접대’가 쉽지만은 않은 일. 광고회사 간부로 18년간 일해온 로빈 제이는 효과적인 접대의 방식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9천원·들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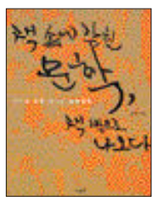
▲한국인에게 고함=뇌호흡의 창시자이자 베스트 셀러인 ‘힐링소사이어티’ ‘휴먼테크놀로지’의 저자인 일지(一指) 이승헌이 한국의 정신과 역사에 대해 논한다. 중국 동북공정 등 한국 역사를 위협하는 역사 왜곡과 남북 통일 등 한반도의 이슈를 민족의 구심점인 홍익인간 정신을 통해 이야기한다. 〈한문화·9천800원〉

▲세계500대 브랜드 사전=브랜드의 힘은 막강하다. 의복, 먹을 거리부터 사무용품, 생활필수품까지 브랜드가 없는 곳은 없다. 경제 저널리스트 토리 챠르토프스키는 세계 유명 브랜드의 탄생과 성공, 실패 등 브랜드 스토리의 모든 것을 전한다. 〈더난출판·2만5천원〉

▲인간=백과사전을 통해 ‘인간’을 만난다. ‘인류의 기원’ ‘몸’ ‘마음’ ‘사회’ ‘문화’ ‘민족’ 등의 7개 주제로 나눠 인간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담아냈다. 풍부한 사진·그림 자료와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감수한 내용은 감탄을 자아낸다. 〈사이언스북스·5만5천원〉

▲싱크! 위대한 결단으로 이끄는 힘=빠른 사고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블링크’는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저자인 마이클 르고는 ‘블링크’가 아니라 ‘싱크’가 결정적 판단의 힘이라고 주장한다. 비판적·창조적 사고를 위한 싱크의 힘을 들여다 본다. 〈리더스북·1만3천500원〉

▲ 김춘추 외교의 승부사=박순교 박사가 신라 무열왕인 김춘추를 조명한 책을 펴냈다. 당시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능동적인 외교정책으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신라 통일을 일궈낼 수 있도록 한 김춘추의 외교 전략을 분석한다. 〈푸른역사·1만5천원〉



▲책속에 갇힌 문학, 책 밖으로 나오다=부산 국제신문 강춘진 기자가 작가와 함께 떠나는 소설 속 현장 여행을 펴냈다. 한승원, 이청준, 조정래 등 대표적인 소설가와 함께 한 현장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교출판·9천500원〉

▲바보상자의 역습=흔히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 칭한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다보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저자인 스티븐 존슨는 이러한 내용에 반기를 든다. TV를 비롯해 영화, 게임, 인터넷 등의 대중문화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한다. 〈비즈앤비즈·1만3천원〉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못했다=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100% 완전한 진실인가. 과학전문기자인 토마 아베르코른은 정치, 경제, 생명, 역사,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지식을 끄집어낸다. 〈다른세상·9천500원〉